

배경지식의 이해

이 배 이

인문역사

표시학본

9평이전

임시본

배표영



이배이 2021 Essential

- 1. 인문예술**
- 2. 사회문화-1 경제**
- 3. 과학기술**
- 4. 사회문화-2 법**
- 5. 융합**
- 6. Final-e**

목차

1. 들어가기에 앞서
2. 최근 기출 Trend 확인
3. 중요도 정리
4. S급 지문 모음
5. S급 심층 분석
6. S급 관련 기출
7. A급 중요 문단 정리
8. B, C급 지문 토픽 정리
9. 자작 지문+연계 포인트

1. 들어가기에 앞서

안녕하세요, 이배이 시리즈 저자입니다.

작년 EBS 분석서 2019 Essential 로 진행했던

‘최종 적중 콘텐츠’는 올해 ‘이배이 Essential’으로 선보입니다.

‘적중’이라 함은 양날의 검입니다.

신뢰를 하다간 배신을 당할 수도 있으며
활용을 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적절한 활용을 하시고

맹신을 하지 마시되,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 최근 기출 Trend 확인

*괄호는 융합지문의 일부

	인문	예술
2022학년도 예시	데카르트와 동일론	무조 음악
2021학년도 6평	과거제	
2020학년도 수능	베이지주의	
2020학년도 9평	(역사)	영화와 역사
2020학년도 6평	에피쿠로스	
2019학년도 수능	가능세계	
2019학년도 9평	벤야민의 도시의 삶	(벤야민의 영화)
2019학년도 6평	동서양 의학	
2018학년도 수능	아리스토텔레스와 목적론	
2018학년도 9평	LP논리와 양자역학	하이퍼리얼리즘
2018학년도 6평	유학	
2017학년도 수능	논리실증주의	
2017학년도 9평		(콘크리트 건축물)
2017학년도 6평	유비논증	음악의 구조

이문

2022학년도 예시문항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겨진다.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오래전부터 정신을 비물리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이원론이다. 이에 견주어 동일론은 정신은 육체, 그중에서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하며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동일론은 이원론을 반박한다.

원자나 엑스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상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이원론자는 정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프니츠는 만일 X와 Y가 동일하다면 이들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제시했는데,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갖는다면, 이 원리에 따라 정신은 물리적 대상과는 다를 것이다.

대표적 이원론자인 데카르트는 그런 특성으로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한다. 그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사람처럼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리적인 추론을 해낼 수는 없으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 힘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먼저 컴퓨터 언어라는 개념은 이제 상식적인 것이 되었다. 컴퓨터 언어는 인간이 쓰는 언어에 비해서 구조와 내용의 면에서 단순하지만 그 차이라 하는 것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이다. 한편 데카르트의 저술이 나타난 이래로 수세기 동안 여러 학자들은 수학적 추론의 일반적 원리들을 이력저력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 기술자들은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했을 법한 기계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데카르트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로 이원론을 지지하는 또 다른 논증으로, 육체의 존재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지만 정신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든다. 의심하기 위해서는 내 정신이 뚜렷하게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육체와 정신 중 하나는 의심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지만 다른 하나는 갖지 않으므로 그 둘은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 사실은 같은 사람인 정약용과 다산을 생각해 보자. 『목민심서』를 정약용이 썼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다산이 썼다는 것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다.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약용과 다산이 동일한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니다.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이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2020학년도 6평

(가)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 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시험 과정에서 익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 준다.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추가 되는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 냈다. 또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방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경쟁적 선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천 년이 넘게 시행된 것은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 준다.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관료 선발 과정뿐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다.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었다. 과거제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들을 통해 유럽에 전해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군의 유럽 계몽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를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심은 사상적 동향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료 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다.

(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인 유흥원의 공거제 구상은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다. 고염무는 관료제의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지방관인 지현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친 이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 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 놓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종희는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벽소'와 같은 옛 제도를 되살리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라는 압력이 있었다.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다.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간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도 낳았다. 또한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험의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되었다. 능력주의적 태도는 시험뿐 아니라 관리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되었다.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에, 지역 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공동체 의식의 약화 역시 과거제의 부정적 결과로 인식되었다. 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출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세습 엘리트나 지역에서 천거된 관리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던 것이다.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그 외의 정치 체제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봉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주장은 단순히 복고적인 것이 아니었다.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을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3. 중요도 정리

*수록 교재 수특=수특과기용, 수특인사예 모두

등급	지문 번호	수록 교재	이베이 페이지	EBS 페이지	소재
S	0-6	수특인사예	72	28	예술 작품의 해석론
S	0-10	수특인사예	90	43	칸트와 데카르트의 회의론
S	1-8	수특인사예	140	75	헤겔과 모방론
S	1-10	수특인사예	152	82	음악의 분석적 해석론
A	5-2	수특	18	268	리오타르와 송고미
A	4-6	수특과기용	178	230	감정, 모방, 아리스토텔레스
A	0-3	수특인사예	54	16	용의 분석심리학
A	0-9	수특인사예	84	40	고갱과 고흐, 인상주의
A	1-3	수특인사예	114	58	인지언어학
A	1-5	수특인사예	122	65	동일성이론, 헤라클레이토스, 언어학
A	1-6	수특인사예	128	68	인식적 회의론, 회의주의
A	1-13	수특인사예	166	92	영화의 내러티브
B	0-1	수완	10	69	천의 사상
B	0-3	수완	20	85	디자인과 지적재산권(예술로 분류)
B	2-1	수완	48	170	귀납 논증, 삼단 논법
C	0-1	수특인사예	48	9	스콜라 철학, 신
C	1-2	수특인사예	106	54	베르그송 형이상학
C	1-4	수특인사예	118	61	랑케 사학
C	1-7	수특인사예	134	72	도덕, 신명론, 아퀴나스
C	1-9	수특인사예	146	79	웹툰
C	1-11	수특인사예	156	85	키네틱 아트
C	1-12	수특인사예	160	89	계획도
C	1-1	수완	26	143	인포그래픽
C	4-1	수완	84	223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4. S급 지문들 모음과 분석

지문 0-6 수특독서 28p, 예술

예술 작품을 해석하는 목적은 작품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 그런데 학자 중에는 예술 작품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 또 예술 작품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여기는 학자 중에는 예술작품의 의미가 감상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고, 그 의미의 해석이 무한하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이처럼 예술 작품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예술 해석의 방법이 존재한다.

먼저 일원론은 예술 작품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해 참인 해석이 다수일 수 없으며, 그 의미가 고정 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일원론을 주장하는 대표 학자인 비어즐리는 예술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지만 드러나지는 않은 의미를 발견하여 전달하는 작업을 해석이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예술 작품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작품 자체가 지닌 의미이다. 또 해석이란 작품에서 발견되는 의미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지 해석자 자신이 무언가를 그 작품에 투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예술작품의 내부와 외부에 엄격한 구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작품 외부에 있는 것을 그 작품에 연관시켜 설명하는 것을 '해석'이 아니라 '부과'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재과 콩나무」라는 우화를 사회 반영론적 우화로 읽는 것이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심리학적 우화로 읽는 것을 해석이 아니라 부과라고 하였다. 이처럼 부과는 작품의 내용이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외부에서 연상되는 의미를 첨가한 것이다.

해석의 절대적 고정성을 부인하는 다원론에서는 예술 작품의 해석에 대한 비어즐리의 견해가 실상 단순히 예술 작품에서 발견한 것을 '보고'하는 기술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다원론자들은 예술 작품의 의미는 다양하므로 목적에 따라, 또는 어떠한 해석적 배경이나 개념들을 가지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수의 수용 가능한 해석들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녔다. 다원론자인 스테커에 따르면 하나의 예술 작품은 다양한 목적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때로는 역사적 관점으로 작품이 해석되기도 하고, 작품에 대한 수용자의 감상 차원, 혹은 전체적인 가치를 극대화하는 관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처럼 해석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고, 해석의 타당성은 목적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스테커에 따르면 예술작품의 해석에 어떤 목적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예술 작품의 해석에 대해 다원론보다 더 극단적으로 보는 입장이 회의론이다. 회의론은 하나의 작품에 대한 참인 해석은 한 가지만 존재한다는 일원론과, 예술 작품에 대한 타당한 해석이 다수일 수 있다는 다원론 모두에 반대한다. 회의론의 입장은 제한 없는 무수한 해석의 가능성을 허용한다. 회의론에 따르면 해석은 참이나 거짓, 혹은 타당성과 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불확정적이거나 미결정적인 것이다. 어떤 해석이 참이거나 타당하다고 판정해 줄 규제나 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입장은 해석의 대상보다 해석자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다. 해석자는 예술 작품 속의 의미를 수동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서 불확실하거나 미결정적인 부분을 창의적으로 채워 넣는 공동 창조자의 지위를 갖는다. 회의론자인 바르트는 문학 작품을 예로 들어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하는 권한을 지닌 저자의 죽음을 선언하고 텍스트의 의미 해석을 해방시켰다. 텍스트 속의 언어가 다의적으로 변화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독자가 제한적으로 다수의 의미를 수용할 수 있다는 다원론과 달리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끝없이 생산하는 주체가 된다고 했다. 독자를 다의적이고 가변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데 참여하는 텍스트의 생산자로 본 것이다.

Theme 1 - 회의주의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앞에 종이 혹은 스크린이 있을 것이다. 그 종이나 스크린이 실존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 보자. 외판 섬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유 모를 전염병으로 인해 원주민 모두에게서 환각 증세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모두 귀신이 보이는 증세이다. 그러면 그 섬에서 '귀신'이 실존하는 것일까? 다시 반대로, 우리가 느끼는 것, 느끼는 공기, 밤하늘에서 보는 별들이 알고 보니 인류 전체에 대한 환각 증세였다면 어떻게 느껴질까? 그런 대상이 실존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회의주의'이다. 회의주의는 위와 같이 모든 혹은 대부분의 명제를 부정한다는 입장이다. 철학의 역사를 보았을 때, 회의주의자들은 생각보다 많으며, 회의주의에 대해 논했던 학자는 더 많다. 하지만, 철학의 대부분의 명제를 반박하는 회의주의의 특성으로 인해, 회의주의는 철학사의 큰 난관으로 작용했으며, 그런 난관을 넘을 때마다 많은 발전을 갖게 되었다.

회의주의에 대해서 알아둬야 할 내용은 분석지식과 종합지식이다. 이는 데이비드 흄이 제시한 지식의 종류이다. 분석지식은 '확실한 지식'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앞의 2017학년도 수능에서 다루었을 것이다. 아래 지문의 일부를 보자.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따라서 콰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위부분을 보면,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논리학 지문에서도 중요하지만, 회의주의에서도 중요하다. 위의 지문과 회의주의에서 명제와 지식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참인 명제가 지식이 되기 때문이다. 분석 지식은 수학적 혹은 논리적 지식과 같이 명확한 지식이고, 종합 지식은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이다. 이러한 내용을 이용해 위의 EBS 지문을 다시 확인해 보자.

데카르트의 경우를 살펴보자. 데카르트가 외부 대상의 실재성을 의심하는 이유는 가장 확실하고 의심할 수 없는 철학의 토대를 찾기 위해서이다. 그의 저서 『형이상학적 성찰』은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의심을 통해 역으로 더 이상 의심 불가능한 확실한 명제를 발견하고자 하는 회의(懷疑)의 방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데카르트는 외부 대상이 우리가 지각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에서부터 출발하여 가장 확실해 보이는 수학적 진리까지도 틀린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想定)한다.

칸트는 외부 대상의 실재성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는 것을 철학적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칸트의 입장은 개연성 낮은 철학적 의심을 수용했던 데카르트와는 전혀 다르다. 칸트는 외부 대상이 우리가 지각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모순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입장은 우리는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다고 가정하는 동시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외부 대상의 본모습을 알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다고 말하려면, 우리가 지각하는 외부 대상의 모습과 우리의 지각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외부 대상의 본 모습을 모두 알고 이를 비교해서 양자의 차이를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굳이 나누자면, '수학적 진리'가 분석 명제이고, 그 외 '외부 대상'은 종합지식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데카르트 이후 흄이 분석 지식과 종합 지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회의주의에 '종합 지식'과 '분석 지식'을 이용하면 훨씬 쉽게 읽히는 것은 적절한 사실이다.

Theme 2 - 예술 작품의 해석론

	일원론	다원론	회의론
대표 학자	비어즐리, 허쉬	마콜라스, 스테커	바르트, 데리다
주장	예술 작품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다.	예술 작품의 의미가 다양하지만, 그 방향은 정해져 있다.	예술 작품의 의미는 무수히 많으므로, 틀린 해석은 없다.
해석자의 역할	예술 작품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존재	목적, 사회적 배경, 문화 등에 따라 예술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역할	해석을 주체적으로 하는 존재
해석의 의미	작품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발굴해서 전달하는 것	외부 조건을 고루 고려하여 다양한 예술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예술 작품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강하여 완전한 작품으로 만드는 것
반박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보고일 뿐이다. 예술가가 의도하지 않은 해석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한, 해석은 참이나 거짓의 문제가 아니다.	작품 외부의 것을 작품 자체와 연결 지을 수 없다. 예술가는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술가가 의도하지 않은 해석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한, 해석은 참이나 거짓의 문제가 있다.	예술의 의미에 혼란이 생긴다. '예술'이 무엇인지 모호해진다. 지금 내가 글씨를 한 글자 쓴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다.

6. S급 관련 기출

목차와 정답

번호	출처	토픽	정답
1	2015 PSAT	회의주의자 논증	5
2	2007 PSAT	대중 예술에 대한 갠스와 필자의 견해	2
3	2015 PSAT	예술 작품 관찰 관점	4
4	2012 LEET	도상해석학과 미술사학, 신미술사학	1
5			3
6			2
7	2015 LEET	헤겔의 예술론	3
8			3
9			3
10			5
11	2016 LEET	컨스터블의 그림	2
12			5
13			2
14	2007 MDEET	현대 연극의 오브제와 그 의미	4
15			3
16			2
17	2006 사관학교	사진의 감상과 사진가의 의도	2
18			5
19			5
20			3
21	2015 6평	작가주의적 비평	4
22			1
23			4
24			5
25	2009 LEET	극단적 회의주의, 가류주의	4
26			5
27			4
28	2011 MDEET	버크가 생각하는 국민의 자질, 회의주의의반대	2
29			5
30			4

1. 다음 글의 빈 칸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의 지각 경험은 우리 마음 밖에 있는 외부 세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회의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당신은 눈 앞에 있는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다. 자세히 보니 당신 눈 앞에 있는 것은 손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경험, 즉 앞에 있는 대상이 손인 것처럼 보이는 지각 경험은 앞에 손이 있다는 믿음을 정당화하는가? 회의주의자들에 따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다른 믿음에 의존한다. 가령, “앞에 있는 것은 진짜 손이 아니라 잘 꾸며진 플라스틱 손이다.”, 혹은 “그것은 정교한 홀로그램이다.”, 혹은 (심지어) “당신은 통 속에서 전기 자극을 받고 있는 뇌일 뿐이다.” 등과 같은 회의적 대안 가설들을 생각해 보자. 이런 회의적 대안 가설들이 거짓이라는 믿음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런 정당화는 무척 어려운 듯이 보인다. 우리는 손처럼 보이는 지각 경험을 설명해낼 수 있는 수많은 대안 가설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 모든 가설들이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획득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에, 모든 회의적 대안 가설이 거짓이라는 믿음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점에 비추어, 회의주의자들은 손인 것처럼 보이는 지각 경험이 손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회의주의자들의 논증은 다음을 추가로 전제하고 있다.

- ① 우리가 외부 세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외부 세계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 ②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회의적 대안 가설이 참이라는 믿음은 정당화될 수 있다.
- ③ 외부 세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거짓이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지각 경험이 유일하다.
- ④ 지각 경험을 통해 외부 세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회의적 대안 가설에 대한 믿음과 외부 세계에 대한 믿음이 양립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 ⑤ 모든 회의적 대안 가설이 거짓이라는 믿음이 정당화될 수 없다면, 손인 것처럼 보이는 지각 경험은 손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2.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식인들의 강력한 비판에 대항하여 대중예술을 옹호하는 일이 어려운 이유는 그 옹호가 어느 정도는 적진에서 수행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지식인들의 비판에 맞서려는 시도는 검증되지 않은 그들의 주장과 그들이 사용하는 중립적이지 않은 용어를 받아들이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대중문화 열광자 대부분은 이러한 수고를 들이면서까지 지식인들의 비판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취미를 옹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대중예술이 자신들 및 다른 많은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 어떠한 옹호도 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중예술에 대한 변호를 자청하는 지식인들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점은 대개 대중예술이 지닌 미적 결점을 너무 쉽게 인정해 버린다는 점이다. 그들은 고급예술을 뒷받침하는 미학적 이데올로기와, 대중예술에 대한 고급예술 지지자들의 미적 비판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면서 대중예술 자체의 미적 타당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와 민주적 원리 같은 ‘정상 참작’에 호소한다. 예를 들어 대중문화에 대한 강력한 옹호자인 허버트 갠스도 대중문화의 미적 빈곤함과 열등함은 인정한다. 창조적 혁신, 형식에 대한 실험, 심오한 사회적·정치적·철학적 질문들의 탐구, 여러 층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깊이 등을 가진 고급예술은 더 크고 더 지속적인 미적 만족을 제공하는 반면, 대중문화는 이러한 미적 특징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문화적 산물인 대중문화를 선택한다는 이유로 하류계층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갠스는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급문화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사회경제적 교육 기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는 그들에게 고급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 여가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므로, 그들의 실제적인 취미에 대한 욕구와 기준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문화로서의 대중예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갠스는 주장하였다.

이것은 대중문화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 뿐이다. 대중예술은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 높은 취향의 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적 자원이 제공될 때까지만 관대히 다루어져야 하는 대상이 되는 셈이다. 대중예술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변호는 진정한 옹호를 침해한다. 대중예술에 대한 옹호는 미적인 변호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옹호가 쉽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우리는 고급예술로는 천재의 유명한 작품만을 생각하는 반면, 대중예술의 예로는 대중예술 중에서도 가장 평범하고 규격화된 것들을 생각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미적으로 평범한, 심지어는 나쁜 고급예술도 많다. 고급예술에 대한 가장 열성적인 옹호자조차도 이 점을 인정할 것이다. 모든 고급예술이 흠 없는 명작들이 아니듯, 모든 대중예술이 미적 기준이 전혀 발휘되지 못한 몰취미하고 획일적인 산물인 것도 아니다. 이 두 예술 모두에서 성공과 실패의 미적 차이는 존재하며 또 필요하다.

- ① 갠스에 따르면 대중예술과 고급예술의 구분 자체가 고급예술 옹호자들의 편견일 수 있다.
- ② 필자에 따르면 미적으로 나쁜 예술이 곧 대중예술은 아니지만 미적으로 나쁜 대중예술 작품은 있다.
- ③ 갠스에 따르면 대중예술이 열등하다는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그것의 미적 특징을 밝히는 데 힘써야 한다.
- ④ 필자에 따르면 미적 결점에도 불구하고 대중예술이 존재하는 이유는 향유 계층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때문이다.
- ⑤ 필자에 따르면 어떤 예술이든지 형식적 한계를 실험하고 깊은 철학적 내용을 다루거나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할 때 고급예술이 될 수 있다.

3.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고전주의적 관점에서는 보편적 규칙에 따라 고전적 이상에 일치시켜 대상을 재현한 작품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반면 낭만주의적 관점에서는 예술가 자신의 감정이나 가치관, 문제의식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표현한 것에 가치를 부여한다.

그렇다면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어떠한 관점을 취해야 할까? 예술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예술가를 화자로 보고, 감상자를 청자로 설정하는 의사소통 형식으로 가정할 수 있다. 고전주의적 관점에서는 재현 내용과 형식이 정해지기 때문에 화자인 예술가가 중심이 된 의사소통 행위가 아니라 청자가 중심이 된 의사소통 행위라 할 수 있다. 즉, 예술작품 감상에 있어서 청자인 감상자는 보편적 규칙과 정형적 재현 방식을 통해 쉽게 예술작품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의사소통 상황에서 청자가 중요시되지 않는 경우도 흔히 발견된다. 가령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주변 사람과 관련 없이 자기 혼자서 탄식하고 환호하기도 한다. 또한 독백과 같이 특정한 청자를 설정하지 않는 발화 행위도 존재한다.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예술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 낭만주의적 관점에서는, 예술작품을 예술가가 감상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만 작품의 본질을 오히려 잘 포착할 수 있다고 본다.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올바른 작품 감상을 위해서는 예술가의 창작의도나 창작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비록 관람과 감상을 전제하고 만들어진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가치는 작품이 보여주는 색채나 구도 등에 대한 감상자의 경험을 통해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 현대 추상회화 창시자의 한 명으로 손꼽히는 몬드리안의 예술작품을 보자. 구상적 형상 없이 선과 색으로 구성된 몬드리안의 작품들은, 그가 자신의 예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관심을 쏟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 ① 고전주의적 관점과 낭만주의적 관점의 공통점은 예술작품의 재현 방식이다.
- ② 고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독백을 듣는 것과 유사하다.
- ③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술작품 창작의 목적은 감상자 위주의 의사소통에 있다.
- ④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술작품의 창작의도에 대한 충분한 소통은 작품 이해를 위해 중요하다.
- ⑤ 고전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예술작품의 본질은 예술가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다.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술사를 양식의 특수하고 자족적인 역사가 아니라 거시적 차원의 보편적 정신사 및 그 발전 법칙에 의거한다고 본 점에서 헤겔의 예술론은 구체적 작품들에 대한 풍부하고 수준 높은 진술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전형적인 철학적 미학에 속한다. 그는 예술사를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이라고 불리는 세 단계로 구분한다. 유의할 것은 이 단어들에 특정 예술 유파를 일컫는 일반적 용법과는 사뭇 다르게 사용된다는 점이다. 즉 이 세 용어는 지역 개념을 수반하는 문명사적 개념으로서 일차적으로는 태고의 오리엔트, 고대 그리스, 중세부터의 유럽에 각각 대응하며, 좀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는 '자연 종교', '예술 종교', '계시 종교'라는 종교의 유형적 단계에 각각 대응한다. 나아가 이러한 대응관계의 단계적 설정은 신이라는 '내용'과 그것의 외적 구현인 '형식'의 일치 정도에 의거하며, 가장 근본적으로는 순수한 개념적 사유를 향해 점증적으로 발전하는 지성 일반의 발전 법칙에 의거한다. 게다가 이 세 범주는 장르들에도 적용되어, 첫째 건축, 둘째 조각, 셋째 회화음악시문학이 차례로 각 단계에 대응한다. 장르론과 결합된 예술사론을 통해 헤겔은 역사의 특정 단계에 여러 장르가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각 단계에 대응하는 전형적 장르는 특정 장르로 한정한다.

'상징적' 단계는 인간 정신이 아직 절대자를 어떤 구체적 실체로서 의식하지 못한 채, 절대적인 '무엇'을 향한 막연한 욕구만 지닐 뿐인 상태를 가리킨다. 오리엔트 자연 종교로 대표되는 이 단계에는 '신적인 것의 구체적 상을 찾아 헤멤'만 있을 뿐이다. 감관을 압도하는 거대 구조물이 건립되지만 그것은 그저 신을 위한 공간의 구실만 하지, 정작 신이 놓일 자리에는 신의 특정한 덕목(예컨대 '강함')을 어렵듯이 표현할 수 있는 자연물(예컨대 사자)의 형상이 대신 놓인다. 막연한 내용을 거대한 형식이 압도함으로써 미의 실현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이 단계의 전형적 장르는 신전으로 대표되는 건축이다.

'고전적' 단계에서는 내용과 형식의 이러한 불일치가 극복된다. 고대 그리스 인들은 신들을 근본적으로 인간적 특질을 지닌 존재로 분명하게 의식했기 때문에, 이제 절대자는 어떤 생소한 자연물이 아니라 삼차원적 인체가 그대로 형상화되는 방식으로 제시되며, 이 단계를 대표하는 장르는 조각이다. 내용과 형식의 완전한 일치를 이룸으로써 그리스의 조각은 더 이상 재연될 수 없는 미의 극치로 평가된다. 나아가 예술 그 자체가 신성의 직접적 구현이기 때문에 이 단계의 예술은 그 자체가 이미 종교이며, 이에 따라 예술 종교라고 불린다.

그런데 인간의 지성은 이러한 미적 정점에 안주하지 않는다. 즉 지성은 절대자를 인간의 신체를 지닌 것으로 믿는 단계를 넘어 순수한 정신적 실체로 여기는 계시 종교로 나아가는데, 이로써 정신적 내면성이 감각적 외면성을 압도하는 '낭만적' 단계가 도래한다. 그리고 조각의 삼차원성을 탈피한 회화를 시작으로 음악과 시문학이 차례로 대표적 장르가 됨으로써, 예술 또한 감각적 요소가 아닌 정신적 요소에 의거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 때문에 내용과 형식의 부조화가 다시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이 단계는 상징적 단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상징적 단계에서는 제대로 된 정신적 내용이 아직 형성조차 되지 않았지만, 낭만적 단계에서는 감각적 형식으로는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고차적 내용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단계는 새로운 더 높은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 정신과 역사의 최종 지점이기 때문에, 이후에 벌어지는 국면들은 모두 '낭만적'이라고 불릴 수 있다.

주목할 것은 헤겔이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는 출발-완성-하강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행 모델을, 그리고 근본적인 정신사적 차원에서는 출발-상승-완성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행 모델을 따른다는 점이다. 즉 세 단계의 순서적 배열은 전자의 차원에서는 예술미의 정점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후자의 차원에서는 지성의 정점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성된다. 나아가 일견 불일치를 보일 법한 이 두 모델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그의 이론은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정신사적 차원에서의 정점이 예술미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퇴보를 의미하도록 구성된 이 이론은 한편으로는 '추(醜)'도 새로운 미적 가치로 인정되기 시작한 당시의 상황은 물론, '개념적'이라고까지 일컬어질 만큼 예술의 지성화가 진행된 오늘날의 상황까지 예견하여 설명할 수 있는 포섭력을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자의 제시라는 과제를 예술이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대 그리스로 한정하고 철학이라는 최고의 지적 영역에 그 과제를 이관시키는, 곧 '예술의 종언' 명제라 불리는 미학적 결론에 이른다.

7. 밑글에 제시된 헤겔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 ① 예술은 내용과 형식의 합일이라는 구체적 방식으로 구현되므로, 작품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개념에 앞선 개별 작품의 파악이다.
- ② 예술의 단계적 변천은 인간 정신의 보편적 발전에 의해 추동되므로, 작품들의 미적 수준의 차이는 그것들의 장르적 상이성과 무관하다.
- ③ 문명의 모든 단계적 이행은 인간 정신의 발전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예술의 역사는 다른 영역의 역사와 연계되어 기술되어야 한다.
- ④ 예술은 인간 정신의 심층적 차원을 표출한 것이므로, 예술미의 성취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 ⑤ 예술 양식 변화의 근원은 인간 내면의 보편적인 정신적 욕구에 있으므로, 모든 시대의 작품들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8. 밑글에 따라 각 시대의 장르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태고 오리엔트의 조각은 상징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
- ②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는 고전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
- ③ 중세의 기독교 회화는 낭만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
- ④ 근대의 고전주의 음악은 낭만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다.
- ⑤ 현대의 건축은 낭만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

9. 밑글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장 앞 단계의 예술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 ② 가장 뒷단계의 예술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 ③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지성적인 예술은 없다.
- ④ 가장 비지성적인 예술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 ⑤ 가장 추한 예술이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10. 밑글에 나타난 헤겔의 예술론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념에 주로 의존하는 전형적인 철학적 미학이기 때문에 논증적 수준은 높지만 실질적 사례를 언급한 경우는 많지 않다.
- ② 당대까지의 예술 현상에 대한 제한된 경험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후 시대의 예술적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결여하고 있다.
- ③ 정신사적 차원에서의 설명과 종교사적 차원에서의 설명을 분리함으로써 양자 간에 발생한 결론상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 ④ 예술사의 시대 구분과 각 예술 장르에 대한 설명이 서로 무관한 논리와 개념에 의거하기 때문에 이론의 전체적 정합성이 떨어진다.
- ⑤ 당대 유럽 이외의 문화를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지성적 단계에 위치시킴으로써 이론적으로 근대 서구의 자기 우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8. B, C급 지문 토픽 정리

- 1. 천의 사상**
- 2. 디자인과 지적재산권**
- 3. 귀납 논증과 삼단논법**

9. 자작 지문+연계 포인트

제작중